대한불교조계종 국제불교 소식지

世界一花

The Whole World is A Single Flower

불기 2556(2012)년 9월 19호

발행인 총무원 사회부장 법광 | **발행처**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 **편집인** 정범 | **편집장** 진서 | **편집위원** 권대식 윤명규 남춘호 선정화 | **전화** 070-7769-8985 | **편집 · 인쇄** 디자인 수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한국을 넘어 세계로

'JATA 세계여행박람회 2012'에 참가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자연과 전통, 불교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고급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문화가 국내를 넘어 본격적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9월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세계여행박람회 'JATA 세계여행박람회 2012'에 참가한 것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관광박람회인 이번 여행박람회는 한국에서만도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15개 지자체, 30여 개 유관기관이 참가했고 전세계 145개국 260여 단체가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다.

현재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며 올해 방문한 일본 관광객은 7월말 기준 211만 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의 성장세이다. 템플스테이는 이런 관광객들이 한국의 문화와 자연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관광경쟁력보고서에서도 최근 템플스테이라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관광산업에서의 국가 경쟁력 및 이미지가 크게 높아졌다고 평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이번 JATA 세계여행박람회 2012 참석은 이와 같은 분위기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본 행사에 앞서 9월 19일 도쿄의 뉴오타이 호텔에서 일본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와 33 관음성지, 사찰음식과 연등축제 등 한국불교문화상품 설명회를 열고 20일부터 23일까지는 도쿄 빅사이트 동(東)전시홀에 홍보부스를 따로 설치하여 현지 여행사, 참가단체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특히 홍보부스에서는 여행사 혹은 박람회 참가단체들이 구체적인 상담을 원할 경우 1:1 매칭 상담도 실시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템플스테이 닥종이 인형전, 인경 체험, 고려사경 시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하여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법진스님은 "사업단의 이번 박람회 참가는 한국불교문화상품의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현지 여행사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관광상품 개발의 활성화와 해외 방문객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새로운 한류상품인 'K-힐링'으로 주목 받고 있는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이 이번 박람회에 소개됨으로써 아시아 지역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한층 확대되고 33관음성지 순례사업도 더욱 활기차게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현대미술, 절을 찾아 오다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변모한 광주 무각사

광주 무각사가 9월7일 개막해 11월 11일까지 66일간 열리는 '2012 광주 비엔날레'의 전시관 중 하나로 선정되어 현대미술의 향연을 함께 한다. 6인의 아시아 여성 큐레이터가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주제로 엮은 이번 전시회는 40개국 92명 작가의 300여 작품들이 무각사를 비롯한 광주 비엔날레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대인시장, 광주극장, 광주서구문화센터, 중외공원, 용봉생태습지 등에서 선보인다.

그중 무각사에서는 불교적 정신, 만남과 인연, 명상 치유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김주연은 문화관 갤러리에 3톤 분량의 소금을 쌓아놓은 뒤 오래된 의자를 놓고 관람객들이 맨발로 앉아 소금을 밟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작품인 "기억 지우기 Ⅲ"를 설치했다. 우순옥은 무각사 경내의 여덟 개의 방들을 하나로 이어 구성한 "아주 작은 집 – 무각사(색의 방, 2012)"를 전시한다. 이 작품은 부분이 전체를 이루고 전체가 곧 부분이 된다는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가 사용한 8가지 색은 일곱 무지개 색과 숫자 0을 의미하는 흰색으로 이뤄지며 초월적 상징과 순환을 의미하는 숫자 8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윤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의 방이기도 한 8개의 방은 하나의 텍스트를 이룬다.

독일 출신의 작가 볼프강 라이프는 무각사 문화관 참선방에서 "망망 대해(unlimited ocean)"를 선보인다. 절에서 기른 쌀과 자신이 직접 모은 헤이즐넛 꽃가루를 재료로 한 그의 작품은 본질적인 삶의 의미와 사물들 간의 상호 연관성이라는 전체적인 의미를 돌아보게 만든다. 이밖에도 뉴질랜드 작가 데인 미첼의 "천상 지도(Celestial Fields)"와 독일의 안리살라의 작품 "틀라텔롤코 충돌(Tlatelolco clash)" 등이 전시된다.

무각사 주지 청학스님은 "무각사가 소통을 주제로 하는 광주 비엔날레에 일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행과 명상의 공간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좌)볼프강 라이프와 그의 작품 "망망대해" (우)김주연의 "기억 지우기 Ⅲ"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한글) www.koreanbuddhism.net(영문)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한 국제불교 소식지는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불교에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담겠습니다.
(※ 지면에 소개되는 기사에는 불교신문의 기사를 편집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법회관 3층 B동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담당_ 선정화 간사)
전화 070-7769-8985 **전송** 02-733-8985 **이메일** kbin8985@naver.com **홈페이지** www.dourim.net/kbin **페이스북**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도심 속 산사체험 '봉은사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는 불교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사찰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하며 마음의 휴식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12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선종수사찰 봉은사는 도심 한가운데서 산사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와 템플라이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절에서 하루 이상 머물며 사찰순례, 참선, 다도, 발우공양, 예불, 인경, 자비명상, 연꽃등 만들기, 염주 만들기 등을 체험하게 되는 템플스테이는 봉은사 내 수련원에서 이루어지며 단체 프로그램과 개인 프로그램이 있다. 당일 하루만 진행되는 템플라이프에는 참여 인원과 연령에 따라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외국인을 위한 목요템플라이프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전체 일정이 영어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 없이 외국인 안내소에서 현장 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단체 5인 이상이면 별도의 시간과 날짜 요청을 할 수 있는 단체 템플라이프, 초 · 중 ·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12시까지 진행되는 청소년 템플라이프 등이 있다.

템플스테이

· **대 상** 개인 – 성인 / 대학생 / 중고생
단체 – 10인 이상 30인 이하
· **시 간** 개인 – 매월 넷째주 토요일
단체 – 날짜 협의 후 진행
(1박 2일 / 첫날 오후 2시 ~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 **참 가 비** 1인 70,000원
· **프로그램** 사찰순례, 다도, 참선, 108배, 발우공양, 예불, 사경 등

외국인을 위한 목요 템플라이프

· **대 상** 외국인
· **시 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30분
· **참 가 비** 1인 20,000원
· **프로그램** 사찰안내, 다도, 참선, 연꽃 만들기

단체 템플라이프

· **대 상** 단체 5인 이상
· **시 간** 별도의 시간, 날짜 지정 가능
· **참 가 비** 1인 20,000원

청소년 템플라이프

· **대 상** 초 · 중 · 고등학생
· **시 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12시
· **참 가 비** 1인 10,000원
· **프로그램** 사찰안내, 다도, 참선, 연꽃 만들기, 전각

봉은사 02-3218-4895/4826
010-5219-5770



원효스님의 발자취 따라 나선 외국인들

지난 9월1일 일곱 명의 외국인 순례자들이 원효스님의 깨달음의 길을 따라 순례를 시작했다. 1,300년 전 한국불교를 찬란히 빛낸 원효성사의 자취를 따라나선 두 번째 순례길이다. 첫 번째 순례는 지난해 12월, 경주에서 출발해 원효 스님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기 전 머물렀던 무덤이 있던 자리로 알려진 충남 당진까지 500Km에 이르는 여정으로 끝을 맺었다. 이번 두 번째 순례도 내포가야산 원효굴에서 끝맺음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원효스님이 의상스님과 함께 당나라로 가기 위한 배를 타기 전날 밤 묵은, 동굴이라고 생각했던 무덤 속에서의 깨달음 이야기는 유명하다. 어두운 굴에서 마신 시원하고 달았던 한 모금의 물이 밝은 아침에 다시 보니 무덤 속의 해골물이었고 그것을 보고 구토를 일으키는 순간, 원효스님은 '모든 것이 결국은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구나!' 라고 크게 깨달았다는 것이다.


〈순례단 인솔자 토니 맥그리거〉

순례단을 이끄는 토니 맥그리거는 이 이야기에서 큰 감명을 받고 순례길을 나섰다며 첫 번째 순례에서 엄청난 영감을 얻었다고 회상한다. "우리는 첫 번째 순례를 통해 넘치는 정과 심오한 정신 문화 같은 한국의 숨은 면모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두 번째 순례에서는 여정 중에 만나는 스님과 그분들의 생활 모습을 담아 다큐멘터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토니 맥그리거는 그들의 작업이 그간 한국인들로부터 입은 후의에 대한 감사의 표시임도 밝혔다.

이 다큐멘터리는 내년 부처님오신날 출시되며 각종 해외 불교 영화제 비경쟁부문에도 출품할 예정이다. 이들의 순례 이야기는 www.inthefootstepsofwonhyo.com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마티유 미키르 작-히말라야 사진

법련사 불일미술관, 마티유스님 사진 전시회



세포유전공학박사이자 세계적인 명상가이며 사진작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티유 리카르 스님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1946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스님은 유전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파스퇴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히말라야에 정착했으며 40년 전부터 네팔에 거주하며 위대한 티베트의 스승들 밑에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버지이자 철학자인 장 프랑수아 르벨과 나눈 대담을 엮어 출간한 <승려와 철학자>는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물론 세계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책을 번역하고 티베트의 풍광을 카메라에 담아 사진집을 내면서 티베트의 정신을 세계로 알리고 있는 마티유 스님은 다양한 NGO 활동도 하고 있는데 티베트에 12개, 네팔에 3개의 학교를 지어 5,000명의 어린이를 공부시키고 있으며 히말라야 근교 국가들에 14개의 병원을 지어 아픈 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사진집, 전시회, 강연, 책에서 나오는 모든 인세와 수익금들을 NGO 활동을 위해 쓰고 있다.

이번 방한 기간 중 스님이 찍은 티베트의 사진들도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주일간 불일미술관에서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40여 년간 히말라야 전역을 다니며 찍은 작품들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던 스님의 고민과 환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일반 사진작가들은 접근할 수 없었던 티베트의 종교 행사와 사원 구석구석의 모습들을 통해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cafe.naver.com/matthieunrabjamrimla/16

아시아 음식문화유산 포럼에 참석한 대안스님

금당 사찰음식문화원 원장 대안 스님은 지난 8월20일~2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음식 문화유산 포럼' 에 참석해 "한국의 사찰음식과 현대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발표문에서 스님은 "사찰음식은 역사적으로 볼 때 수행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되었지만 전통적으로 사찰에서의 음식 준비는 일상에서의 수행의 연장선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때로 수행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 양식을 조달한 경우도 있다. 공양에 쓰이는 네 개의 발우가 정신의 완벽한 평정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소비를 의미하듯 사찰음식은 절대평등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며 최근 들어 새롭게 조명되고 현대화된 한국의 사찰 음식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더프라미스, 광주국제아트페어에 가다

예술과 기부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

▲ 광주국제아트페어를 참관중인 방문객들

예술과 기부 문화를 연결시키는 역할로 아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개발 구호단체 더프라미스(The Promise)는 NGO로서 처음으로 지난 9월5일 개막한 '아트광주12'에 참여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업지인 미얀마와 동티모르를 홍보하고, 젊은 작가와의 협력을 통해 전시된 미술 작품 판매를 통해 구매자들을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시키고자 한 것이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 5인은 비영리 공간에서의 전시 참여를 흔쾌히 받아들여 주었고 덕분에 사진, 회화, 조각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이 전시되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한국 고유의 전통과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재해석한 임수식 작가의 "책가도"는 내 외국인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는데 이번 전시를 계기로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될 예정이다. 이미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고, "나무" 시리즈로 유명한 이명호 작가의 작품과 다양한 벽 시리즈 중 중국 하얼빈에서 찍은 벽 사진을 전시한 강제욱 작가(환경 사진 작가)의 "Asian Wall"은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고 철학적 주제를 키치스럽게 담아낸 심아빈 작가의 작품은 전시장의 세련미를 더했으며, 현대인의 모습을 희화한 변경수 작가의 조각 작품 "하이 다이버(high diver)"는 전시장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하며 어린이는 물론 남녀노소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아트광주는 사치(Saatchi) 등 해외 유명 갤러리와 뉴욕 APT(Artist Pension Trust, 작가연금신탁)를 비롯한 해외 33개 갤러리 등 81개 갤러리가 참여했으며 광주 비엔날레 기간 중 열리는 차별화된 아트페어가 되었다. 더프라미스의 이번 전시 작품 수익금은 교육사업으로 후원될 예정이다. **더프라미스 070-7596-9989**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 만해평화대상 수상

불교계 대표 국제개발구호 NGO인 지구촌공생회가 케냐에 만해 한용운 스님의 생명 · 평화정신을 전한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은 지난 8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때부터 시작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지구촌공생회 활동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자승스님)가 제정하고 만해마을이 수여하는 제16회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했다. 월주스님은 이번에 받은 상금 5,000만원 전액을 케냐 만해 학교 건립금으로 회향했다.

월주스님은 수상 소감에서 "지금도 지구상에는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9억 5,000만 명"이라며 "앞으로도 한용운 스님의 평화와 계레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중생을 안고 가는 나룻배처럼 끊임없이 세간에서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수행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케냐 카지아도주 올로이토키톡 지역에 세워질 만해학교의 건립액은 우리 돈으로 1억 2,000만원이다. 지구촌공생회는 만해 한용운스님이 평생 헌신했던 생명 · 평화사상을 케냐에 전달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교신문사와 공동으로 『하바리(안녕) 만해학교!』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편 월주스님은 지난해 제1회 민세상 상금으로 받은 2,000만원도 케냐 지역개발을 위한 저수지 구축비로 회향한 바 있다.

지구촌공생회 후원문의 02-3409-0303

하바리(안녕)만해학교! 캠페인 후원 계좌

외환 630-007156-170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로터스월드, 캄보디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취약계층 교육 지원

국제구호 · 지역개발단체 로터스월드는 올해 초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캄보디아 시엠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지원 대상은 시엠립 지역에서도 문맹률이 높은 르뷔아 마을, 뿌어 마을, 로터스월드아동센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성인들과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들을 포함한다. 교육은 크메르어 수업을 기본으로 하여 성인의 경우 생업과 생활에 도움이 될 기초농업과, 보건교육, 영어, 한국어교육을 진행하며, 아동들의 경우 기본 초등과정인 수학, 사회, 영어와 더불어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성인 114명, 아동 266명 총 380명의 시엠립 주민들이 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로터스월드는 교육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르뷔아 마을회관을 개보수 하고, 뿌어읍에 주민교육센터를 건립하여 교육공간을 확보하였다. 또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민조직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시엠립 지역에서 하루 1달러(11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30% 이상이고, 문맹률도 높게는 32%까지 나타난다. 글을 읽고 쓸 수 없다는 것은 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높은 소득의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터스월드는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교복, 교구재비 등의 부담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동들의 교육을 지원하여 빈부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초등교과과정을 수료하는 아동은 65%밖에 되지 않고, 빈곤한 하위계층 아동 가운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5%만이 중학교에 진학한다. 가난이 지속적으로 되물림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사회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만든다. 로터스월드는 교육을 통해 캄보디아의 긍정적 미래를 그리고 있다. 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아동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함께 사는 지구촌의 더욱 밝은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 **로터스월드 www.lotusworld.or.kr**



〈르뷔아 마을 아동들의 크메르어 수업사진〉

미 전역, 전법단장 계성스님 순례 법회

조계종 전법단장 계성스님은 6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미주지역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하여 직접 전법 순회를 다녀왔다. 6월17일 보스턴 문수사를 시작으로 6월24일 뉴욕 원각사, 7월1일 뉴욕 불광선원, 7월8일 필라델피아 관음사, 7월15일 뉴욕 원각사, 7월22일 시카고 불타사, 7월29일 토론토 대각사, 8월5일 LA 정혜사, 8월10일 LA 원명사, 8월12일 LA 태고사에서 법회를 열고 귀국했다. 스님은 8월 23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전법 순회 감회를 밝혔다. 미주지역에서 다양하고도 애환 가득한 활동들을 한 결과 한국사찰은 140여 개가 전법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인교회는 무려 4,300개나 돼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현실이다. 그래서 스님은 "종단차원에서 해외교구 건립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총무원장스님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스님들이 정식으로 부임해 포교활동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훨씬 효과적인 전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님들은 참 열심히 포교하고 있다. 불자들 역시 몇 시간을 소비하면서 사찰에 와 정기법회를 보고 있었다. 이들을 보면서 미국에서 불교의 강인한 생명력을 봤고, 한국불교에 대한 희망도 봤다."고 전했다. 스님은 앞으로 전법단의 계획도 밝혔다. "포교원과 상의해서 전국의 전법단 소속 300여 명의 스님들과 면담해 해외포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외지역을 순회하는 전법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스님은 전법단 스님들이 비행기 경비 정도만 마련하면 해외 여러 지역 불자들이 체류 비용을 부담해 전법 활동도 하고, 스님들의 견문도 넓히는 윈-윈(Win-Win)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스님은 전법단 해외순례를 3회 정도 할 의향도 내비쳤다.

스님은 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연세 드신 한인 불자들이 며칠 동안 한국사찰을 순례하며 머물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하고 싶어 한다며, 이들에 대한 종단의 배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글_ 불교신문 여태동 기자 / 사진제공_ 포교원

▼ 시카고 불타사 주지 현성스님 및 불자들과 함께 법회를 마치고



테하차피 태고사, 소식지 '법향' 발행

LA 테하차피 태고사(주지 무량스님)는 지난 8월, 미국에 사는 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고자 '법향'이라는 소식지를 발간하였다. "내게는 색다른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통장은 비밀번호도 없고 도장도 필요 없습니다.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누가 가져가도 좋습니다. 아무리 찾아 써도 예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찾아 써도 늘어나고 새로 넣어도 늘어납니다. 예금을 인출하기도 쉽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밤중에 자리에 누워서도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추억 통장'입니다."로 시작하는 소식지에는 태고사의 지난 소식과 앞으로의 행사 그리고 법문이 실렸으며, 경전 배우기, 법구경, 불교기초교리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스님은 불자들이 소식지를 통해 힘들고 바쁜 미국 생활 가운데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발간 소감을 밝혔다. 소식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태고사로 연락하면 된다. LA 태고사 +1-661-822-7776

미 북가주, '저소득자 돕기 김장모금 바자' 개최

불자들의 모임인 자비봉사회(회장 김영자)가 저소득자를 위한 이웃사랑에 나섰다. 서니베일 갤러리아마켓 앞에서 25일부터 이틀 동안 '저소득자 돕기 김장 모금 바자회'가 열렸다. 자비봉사회는 2009년부터 1년에 최소 두 차례 바자회를 열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수익금을 사용해 오고 있다. 이날 바자회는 김영자 회장과 북가주 청년 모임 타라 회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했다. 양일간 진행된 바자회에는 가구와 전자제품을 비롯해 옷가지 등 약 50종류의 다양한 생필품이 판매돼 약 3,000달러가 모금됐다. 김영자 회장은 "수익금으로 저소득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김치를 담가 전달하려고 한다. 한인회나 노인회 등 각 단체에 미리 연락하여 김치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파악한 후 그만큼의 양을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바자회보다 김치 담그기가 더 어렵겠지만, 주변의 이웃에게 따스한 사랑을 김치에 담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비봉사회는 오는 10월 13일 밀피타스 서밋 포인트 골프클럽(1500 Country Club Dr., Milpitas)에서 '제3회 이웃돕기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 수익금은 노숙자, 쉼터 등에 쓰이게 된다. 글_ 보리사 주지 형전스님

미동부해외특별교구, 10월에 코리안 퍼레이드 참가

대한불교조계종 미동부해외특별교구(교구장 휘광스님)가 한인 불자들을 이끌고 맨해튼에서 펼쳐지는 제32회 코리안 퍼레이드에 참가하여 한국불교 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퍼레이드는 10월 6일 정오 맨해튼 6 애비뉴(Avenue of Americas)를 따라 38가에서 27가까지 미주한국일보 주관으로 펼쳐지는데, 미동부해외특별교구에서는 불자들을 이끌고 행진한 뒤 맨해튼 32가 야외 장터에서 한국 불교를 알릴 예정이다.

교구는 뉴욕불교신도회와 협력해 퍼레이드 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는 뉴욕, 뉴저지에 있는 해외특별교구 산하 10여 개 한인 사찰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한복이나 법복을 입고 행진함으로써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를 타민족들에게 알릴 계기로 삼고자 한다.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목표로 지난해 4월 해외특별교구법을 제정, 미 동부에 첫 해외특별교구를 설립하였으며, 올 1월 불광선원 주지 휘광스님이 미동부특별교구장에 취임하였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코리안 퍼레이드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불교문화를 알리는 홍보 및 포교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가를 기대하고 있다.

교구장 휘광스님은 "오랫동안 타민족들에게 한인들의 위상을 알리며 맨해튼에서 지속하여온 코리안 퍼레이드에 조계종 해외특별교구가 참가하게 되어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코리안 퍼레이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구는 각 사찰의 청년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회원 사찰에서 많은 불자가 퍼레이드에 참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글_ 미동부특별교구 총무 문종스님

문의_ jogyeorder@gmail.com
+1-212-574-4440(도명화 사무주임)



남가주 불교연합 합창단, 열린 마당 음악회 개최



지난 8월 25일 남가주 불교연합 합창단은 LA 한인타운에 있는 달마사 주차장에서 "열린 마당 음악회"를 열었다. 일반대중을 위한 음악회가 사찰에서 열린 것은 미주에서는 처음이며 약 400명의 관객이 참석해서 즐겁게 보냈다. 성악가, 합창단, 미국인 싱어송 라이터와 할리우드 보울에서 연주한 30인조 LA 케이팝스(KPops) 오케스트라가 출연하여 가곡, 가요, 팝송 등 다양한 음악을 선사했다.

이번 음악회를 주최한 불교연합 합창단의 김진모 단장은 "보통 불교행사와는 달리 이번 열린마당음악회는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청중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지속되는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이 잠시나마 일상생활의 시름과 걱정에서 벗어나 음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활기를 찾는 데 보탬이 되고자 준비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LA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LA지역 모든 한인을 위해 마련한 행사라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 불교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고, 특히 음악회가 열린 LA 달마사의 대웅전은 전 미주에 얼마 안 되는 우리 전통 양식으로 지은 건물로서 음악회에 참석한 일반 청중에게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포교의 관점에서 중요한 수확이었다.

글_ 대원 거사

뉴욕 청아사, 선재한국학교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

대한불교조계종 청아사(주지 석담스님) 선재한국학교 학생들이 8월 26일 뉴욕 롱아일랜드 힉스빌 소재 사찰에서 불우 이웃돕기 바자회를 개최했다.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재활용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바자회를 개최하여 돈을 보태고 있다. 특히 백중 기간에 매년 양로원 등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함으로써 효사상이나 승보공경이라는 살아 있는 선망 부모들에게 효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석담스님은 한사코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절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물질이 풍요로운 오늘날 아이들에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하나쯤 가르쳐 준다면 훨씬 자비로운 사람으로 자라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선재한국학교는 9월 16일 개강을 앞두고 등록생도 모집한다.

뉴욕 청아사 +1-516-938-0563

인도 뉴델리 자혜정사, 작지만 행복한 신행 모임

인도를 함축해서 표현하는 말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한다. 인도는 뿌리 깊은 관습인 카스트제도가 일상 곳곳에 잠재되어 있어, 인도에서 일을 하자면 여러 가지 제도, 문화, 관습 등 모든 면에서 우리하고 너무 달라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기도 하다.

한 예를 들자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한국 교수분께서 교실이 너무도 지저분해서 청소를 하였더니 인도 학생이 놀라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청소를 하시느냐?"고 극구만류를 해서 교수님은 '아, 이 학생이 청소를 하려나 보다' 하고 도구를 건네주었는데 다음날 가보니 청소가 안 되어 있더란다. 어서 어찌된 영문인가 알아보니 학생 본인은 신분 때문에 청소를 할 수가 없어 청소하는 사람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그냥 갔노라고..... 벽에 못 하나를 박고 싶어도 일꾼이 와야 일이 진행된다. 우리가 하려 해도 극구 말려서 못하니, 근면, 성실, 부지런한 한국인들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이렇게 삶의 방식과 방법이 너무도 다른 거대한 인도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뉴델리의 한 자그마한 공간에 한국의 불자들이 오순도순 모여서 참선수행과 법회의 시간을 갖고 있다. 바로 자혜정사이다. 이곳은 몇 분의 교민 불자님과 각 회사에서 파견 근무 나온 주재원 불자님 들의 구성원들로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는 부처님의 탄생지여서 그 동안 스님들과 보살님 등 많은 분들께서 다녀가셨으나 이곳 불자님들과 매시간을 함께하는 스님은 안 계시고, 부분적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보살님들께 참된 지혜와 정신적 스승이 되어주시는 준현스님과 참선 수행을 동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자용스님이 계시다. 준현스님께서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계시는 다람살라에서 오랜 시간 홀로 정진수행을 하시는 지혜의 샘을 지니고 계신 분이며, 가르침을 구하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청정함과 깨달음의 장을 열어주신다. 자용스님께서는 뉴델리 네루대학에 기숙하면서 산스크리스트어 불교학에 대한 박사논문을 준비중에 계시다. 학문과 지식이 출중하고, 한국에서도 탱화를 그리셨지만 티베트에서 돌가루를 이용해 그리신 천수천안 탱화 작품은 오묘한 색감과 깊이감으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일으킨다. 화려하나 화려하지 않은 은은함은 스님의 향기 그 자체였다. 두 분 스님께서 어찌나 맑고 청정하신지 스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속세의 먼지와 마음의 때가 씻겨 몸과 마음가짐이 대나무의 기상처럼 올곧게 서게 한다.

자혜정사의 보살님들은 두 분 스님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쉼 없이 흐르는 시간과 함께 잔잔한 개울물이 되어 시간의 흐름을 같이 가고 있다. 이곳은 보살님들 스스로 마음 닦기의 장을 열어 서로의 그릇이 커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

글_ 대자행 맹미령

미주지역 한국 사찰, 백중기도 회향

미국의 조계종 한국사찰들은 일제히 9월 2일 백중(우란분절) 천도재를 봉행하고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였다. 워싱턴 보림사 주지 경암스님은 설법을 통해 "사람은 인간이란 한 계 때문에 생전에 뜻하지 않게 많은 죄를 짓게 된다. 부처님의 은혜와 법력으로 죽은 이들의 영혼의 넋을 위로해 마음의 한을 풀고 다른 세상으로 가게끔 유도하는 제사가 바로 천도재"라고 말했다. 불가에서는 일명 우란분절이라 부르는 백중날에 천도재를 올려 왔다.


〈불광선원 천도들이 영가 전에 잔을 올리고 있다〉

한편 뉴욕 불광선원(주지 휘광스님)도 조상영가와 인연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하였으며, 불자들은 살아가며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영가 천도의 공덕을 쌓는 기회를 가졌다.

글_ 편집부

오클랜드 보리사, 보리한국문화학교 학생모집

지난 2011년 개교한 보리한국문화학교가 9월 1일 개학을 맞이했다. 아직은 접수가 진행 중이다. 1교시 한글수업, 2교시 미술수업, 3교시 사물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세 명의 아이가 그대로 이어지고 새롭게 학교를 찾은 아이도 있었다. 대부분 아이들은 여기에서 태어난 2세들이다. 그리고 함께할 도우미 선생님도 모집중이다.

보리한국문화학교는 한글과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1층에서 진행되는 한문 학교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한국어와 독일어, 영어에 능통한 김 선생님의 영어로 진행되는 한문 수업이다. 천자문을 통해 아시아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진행은 프로젝트를 이용한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후원을 받고 있다. 보리사는 문화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살아 있는 설법 공간이다.

글_ 보리사 주지 형전스님



대만 첸슈지우, 채소 팔아 모은 전 재산 보시

2012 막사이사이상 수상

올해 60살인 첸슈지우 보살님은 지난 40여 년 동안 매일 2시 반에 일어나 사람들이 북적이는 대만 동부 타이퉁 중앙시장에 채소 판매대를 설치한다. 보살님은 100여 종의 신선한 채소를 자신의 키보다 높게 쌓아놓고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한다.

시장에서 허리가 끊어질 만큼 하루 종일 일을 하고는 집에 돌아가 잠들기 전 라디오를 틀어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 첸 보살님은 수십 년 엄격하고 고된 삶을 살아오면서 모은 재산을 아이들 보육과 교육 사업을 하는 여러 단체에 보시하고 있다. 첸 보살님의 엄청난 자비가 세계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여러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고 레드 카펫을 밟거나 유명 인사를 만났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첸은 2012년 막사이사이상을 탔다. 막사이사이상은 용기와 창조력으로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첸과 이외 5명이 필리핀 파사이 시에 있는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상을 받았다. 그러나 첸은 몇 년 전 한 지방 신문에 소개된 이후 이어지는 칭찬 세례에 단지 자신은 평범한 채소장수에 불과하다며 겸손해 한다. 첸은 20여 년 전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시장의 채소 판매대에서 가능한 한 오래 떠나 있고 싶어하지 않는다. "제가 대단한 영웅도 아니고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상인일뿐 입니다."라고 첸은 말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히 첸의 자비심을 접한 사람들은 첸이 찬탄과 칭송을 받을 만한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상을 수여한 막사아사이재단 측은 "첸이 깊고도 지속적이며 조용한 자비심으로 나눔의 순수한 박애를 실천했으며 많은 대만 사람들을 도왔다."고 말했다.

첸은 지난 20여 년 거의 모든 재산을 불광산사에 보시해 학교와 고아원의 재정적 지원을 도왔고, 음식과 교육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정신적 정서적 성장에 정성을 기울였으며 자신의 모교인 렌아이초등학교에 재정을 지원해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진 도서관을 짓도록 했다.

Philippine Daily Inquirer [2012. 9. 3]



〈2012 막사이상 수상자들〉



스리랑카, 문네스와람 동물 희생제의 금지

문네스와람 칼리 코빌 사원에서 행해져 왔던 동물 희생제가 무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단되었다. 이번 결정은 코빌 집행부가 카필라바스투 유물 전시를 고려해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200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스리 바드라 칼리 암만 사원에서 매년 희생되어왔다. 메르빈 실바 내무부 장관은 동물 희생제를 금지하기 위해 사트야그라하(생명존중)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메르빈 장관은 작년에 코빌 사원 경내에 들어가 희생되기 직전의 염소와 가금류 700여 마리를 사원 밖으로 이송했다. 그러므로 현재 칼리 축제는 동물 희생 의식 없이 열리고 있다.

동물 보호단체와 불자들, 다른 종교단체들도 동물 희생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다. 스리랑카 힌두 전체 위원회는 방송매체를 통해 동물 희생가 잔인하고 죄를 짓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메르빈 장관은 대통령의 요청으로 칼리 코빌의 동물 희생이 중단되었고 자신도 작년부터 이 잔인한 행위를 멈췄다고 언론과의 모임에서 말했다. 와질라스님은 동물을 죽이는 것이 스리랑카의 도덕성을 훼손시킨다면서 부처님 말씀 어디에도 동물을 해롭혀도 된다고 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나라 전체에 종교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다섯 번 오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동물 희생과 같은 의식은 나라 전체 이미지에 오명을 남긴다고 스님은 말했다. 스님은 또한 1893년 영국정부도 동물 법률을 제정해 동물 보호를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Lanka Daily News [2012. 8. 31]

미얀마 스님들, 회교도인 로힌야족에 대한 탄압 지지



태국, 방콕 – 굳은 표정을 한 스님들이 소수자들에 대한 탄압을 옹호하면서 거리 행진 하는 것을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바로 수천 명에 달하는 미얀마 스님들이 정부의 회교도인 로힌야족 탄압을 지지한다며 만달레이 거리 시위에 나선 것을 말한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은 부당함으로 가득하다. 이런 부당함에 반대하고 인간의 잔인함이나 편견에 맞서야 하는 것이 스님들의 사명 아닐까? 미얀마 밖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던진다. 왜냐하면 로힌야족 탄압에 지지를 보내는 스님들이 바로 2007년 군부 탄압에 반대해 국민 편에 서서 정부에 봉기했던 그 스님들이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을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 시위에 나선 것일까? 그렇다면 스님들에겐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답은 단순하다.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이다. 스님들은 국민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단지 그들 자신들만의 정의를 원하는 것이다.

주류인 버마족 불교도로서 스님들은 까만 피부의 로힌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로 불교도들의 땅을 빼앗아 갈 호전적인 이방인이라고 깊게 믿고 있다. 민족주의라 불리든 애국주의라 하든 스님들이 우리와 너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갈라놓고, 증오를 키우고 폭력을 유발하는, 불교의 가르침에 반하는 편견에 빠져 있는 것이다.

태국의 스님들은 말레이 회교 분리주의자들의 제거를 위해 거리에 나서는 것까지는 꺼려했지만 다른 종교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법 제정을 요청한 적이 몇 번 있다. 불교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세우기 위해 벌이는 캠페인을 취재할 때마다 회교도에 대한 깊은 불신의 소리를 듣곤 한다. 불안한 남부 지역에서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걱정하거나 부당성을 지적하고 소수민족 간 폭력과 좌절의 뿌리 깊은 원인을 제거하자고 주장하는 스님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스님들은 군인들에게 수계를 해서 스님의 숫자를 늘리는 방어적이고 위험한 길을 택하고 절을 막사로 사용케 한다. 태국은 근래 선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재가 불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라가 정치적인 분열에 휩싸여 있을 때 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기를 기대한다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좌와 우, 찬성과 반대의 양 극단에 치우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내 편의 증오에 찬 말이나 폭력 등은 다 옳다고 믿는다. 만약 이대로 놔둔다면 극단적 민족주의에 근거한 국가주의는 더 많은 폭력을 낳을 것이다. 국가의 지역 통합이라는 목표는 완전한 말장난에 불과하게 된다. 그리고 스님이나 재가 불자들이 하는 장시간의 선 수행은 단지 시간낭비일 뿐이게 되는 것이다.

The Bangkok Post [2012. 9. 5]

국제불교 단신

◆ 미국 대선 전당대회에서의 정념수행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경선이 열기가 더해짐에 따라 자원 봉사자들이 곧 있을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행사에서 명상, 요가, 태극권 등을 지도하는 "정념투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 신문 허핑턴 포스트는 매 전당대회에 "정념투표"를 도울 "오아시스"를 조직해서 명상, 요가 등의 지도자들을 파견함으로써 각 정당 대표들이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참선과 요가를 통해 심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 국제구호불자회, 2012년 걷기 대회

국제구호불자회(Buddhist Global Relief)가 오는 10월 워싱턴, 뉴욕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걷기 행사"를 통해 모금을 한다. 이 걷기 행사는 만성적인 굶주림과 영양결핍으로 고통 받는 세계인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행사로 2010년 남부 오렌지, 뉴저지에서 시작되었다. 지역의 조직위원들이 걷기 행사를 주관하고 지역에 따라 법문과 점심이 제공되기도 한다.

집중조명

교실에서 하는 참선, '감성학습'의 도입

캐나다 학교, 심리학을 교과목으로 설정

9월에 학생들이 개강하면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신들의 뇌가 첨단문명 시대에 잘 대처할 수 있게 지성뿐만 아니라 정신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즘 문화가 점점 광포하여짐에 따라 몇몇 학교들이 교육을 개편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방송매체의 메시지나 기계의 맹렬한 자극의 홍수에서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저명한 과학 잡지의 보고에 의하면 캐나다의 175개 교와 미국 75개 교에 달하는 유치원부터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마음 수행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마음 수행 교육으로 학생들은 집중하고 인내할 수 있는 정신력을 키운다. 인지 과학자들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학습에 큰 장애이다. 그래서 학교당국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기 보다는 사회적 감성적 배움이라 하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영화배우 골디 혼이 만든 재단에서 나온 마인드업(Mind Up)이라는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고안된 알아차림 호흡명상을 가르친다. 이 프로그램은 알아차림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멈추어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른들이 하기에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학생들은 또한 절제와 인내를 배운다. 이러한 훈련은 생각과 감정을 잘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작업은 전두엽에서 일어나는데 전두엽은 20대가 되어서야 마지막으로 활성화에 이르는 뇌의 영역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어린 학생들이 멋진 제2의 버락 오바마가 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물론 이런 뇌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코앞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반문화 정서가 강했던 60년대 우리는 생각과 억압적인 감정을 다 드러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었다. 억압은 적, 부정은 죄악과 동일시되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어떤 때는 감정을 터트리는 것이 유용할 경우가 있어 선택적으로 적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한 번의 화가 더 많은 화를 내고자 하는 욕구를 낳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화에 대한 견해는 새롭게 수정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신중함과 성숙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호흡을 관하거나 하루에 5번 감사했던 일을 기록하게 하는 등의 훈련이 앉아 있기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의 기를 오히려 꺾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예의 바른 학생으로 성장하려면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수행이 아니라 육체적인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들의 주장이 다 각각 맞는 면이 있다. 그렇다. 아이는 아이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이들 또한 배우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교육이 지속되는 한 교사들은 자녀의 인격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하는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는 부모들을 대신해야 한다. 부모와 교사만이 욕망과 절제 사이를 조절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한다. 그러니 이 글에 어떤 답을 내놓기 전에 깊게 호흡을 들이쉬고 열까지 세어보라.

CBS News [2012. 8. 23]



삼보에 귀의하여 중독을 치료하기

"다르마 펑크"의 저자 노아 러바인이 만들었고 "삼보치료"라 불리는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시에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가페센터에서 9월 8, 9일에 열렸다.

삼보치료는 새 학기가 시작하는 때 성인과 청소년들에게 이상적인 프로그램이다. 노아 러바인의 중독 치료법은 선수행의 기초를 배우기와 불법에 근거한 "삼보치료의 네 가지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어떤 류의 중독이라도 그것은 집착과 회피의 결과이다. 삼보치료 프로그램은 중독 치료 과정에서 자신을 비판이 아닌 자비심으로 대할 것을 가르친다. 삼보치료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힘과 잠재력이 있다."는 불교적 가치관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다.

1. 중독은 고통을 일으킨다.

우리의 중독과 이에서 나오는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일으켰던 고통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중독과 관련하여 경험했던 고통의 목록을 상세히 적어보라.

2. 중독이 당신의 잘못만은 아니다.

모든 형태의 중독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즐기고 덜 고통 받고 싶어 하는 삶에 대한 인간의 집착적 본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중독자는 중독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과 조건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반복적인 행동패턴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적어낸 목록을 멘토나 치료사와 함께 분석하고 살펴서 중독과 고통의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3. 치료는 가능하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 기꺼이 책임지려 하고 8정도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중독에서 오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사회 공동체를 믿고 수행과 자신의 중독 치료 가능성을 믿어라. 8정도를 공부하고 적용하면 결국 중독의 치료와 나아가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4. 치료를 위한 8정도

8정도는 수행을 통해 경험되고 통찰되어야 한다. 8정도의 각 요소는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에 수행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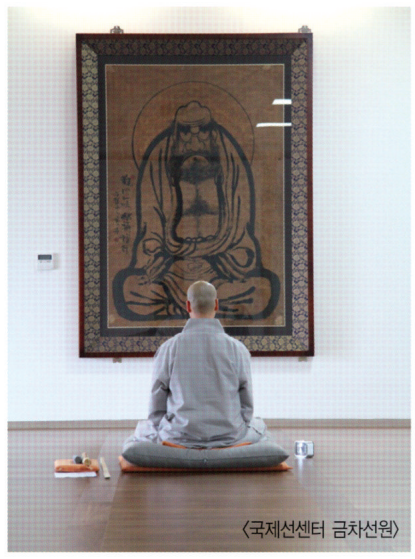
The Sun [2012. 9. 2] / 노아 러바인

무상관, 변화를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마음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은 불교 가르침의 근간이다. 존재의 무상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법문은 거의 없다. 그러나 불교의 중요한 개념 중 특히 무상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근심과 두려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울 수 있다.

어렸을 때 나는 항상 죽음을 무서워했다. 밤에 누워 내가 죽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 라는 자각으로 공포에 싸였던 기억이 난다. 갓난아기였을 때는 삶의 유한성을 이해할 수 없으나 조금 성장한 아이들은 이러한 단계를 다 거친다. 죽는다는 사실에 꽤 충격을 받지만 아이들이 이러한 발달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게 부모들이 돕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만난다. 이때 무상을 관하는 수행으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을 바로 보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공포와 마찬가지로 무상도 잘못 이해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고 게다가 우리의 좋은 의도로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된다. 제행무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만 듣고 너무 일찍 두려움과 대면함으로써 죽음과 변화에 대한 극한 공포심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무상을 주제로 접근하고 연구하려면 어느 정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무상관을 할 때 우리는 종종 변화의 부정적인 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좀 더 균형 잡힌 출발을 하려면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탐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실제로 무상함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예를 들어 변화할 능력 없이도 사랑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고 삶의 무상함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국제선센터 금차선원〉

게 된다. 이 점을 이성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

이러한 기초를 다진 후에는 변화의 좀 더 중립적인 면을 관찰하기가 쉬워진다. 예를 들면 관하는 마음을 계절의 변화나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어떤 대상으로 옮겨 갈 수 있다. 이런 형식의 수행에 불편함이 느껴지면 잠시 긍정적인 면에 마음을 옮겨가면 된다. 이러한 과정들에서 중요한 것은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공포심의 뿌리는 대단히 깊을 수 있고 사전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점을 관하는 것이 수월해지면 이때가 부정적이라 생각되는 변화의 측면을 관할 시기이다. 그러나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긍정, 부정, 중립적이라고 하는 판단 작용 자체가 적어져 변화를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마음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의 핵심은 무상을 긍정적으로 관해 다른 주제의 영역도 관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혹 무상관 수행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다.

Buddhistdoor [2012. 8. 1]

제4회 이주민어울림한마당 – "오늘은 이주민이 주인공입니다"

지난 9월 2일, 잠실 보조경기장에서는 불교계의 대표적인 이주민 행사인 "제4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이 국제포교사회(회장 배광식)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도제스님)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네팔, 미얀마, 몽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한국과 더불어 올해 처음 참가한 중국 참가팀까지 총 9개국 8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갑작스러운 태풍의 여파로 우천행사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듯 간만의 화창한 날씨가 각국 참가자들을 맞아주었다.

배광식 회장의 인사말과 네팔, 스리랑카 대사의 격려사로 행사 의포문을 연 뒤 배구대회, 줄다리기, 축구대회 예선 경기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평소 힘든 노동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친구들과 호흡을 맞추며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과 그런 선수들을 격려하는 응원단의 열정적인 응원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부대행사로 준비된 음식부스에서는 네팔, 미얀마, 한국, 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종목별 우승을 가린 이날 경기에서 줄다리기 몽골, 배구 캄보디아, 축구 중국, 400m 계주 네팔, 장애물달리기 미얀마가 우승을 차지했다. 1부 체육대회에 이어 2부에서는 총 11개 팀이 전통문화공연에 참가하여 실력을 뽐내었다. 특히 초청공연으로 온 K-락 그룹 J-Moming의 공연으로 모든 참가자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몽골 자야씨는 "배구는 아쉽게 졌지만, 줄다리기를 열심히 응원했는데 우승을 해서 매우 좋고, 내년에는 더 많은 몽골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불광사와 화계사에서 이주민들을 위해 백중 후원 물품을 회향하시어 훈훈한 나눔의 장이 되었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❶몽골인들의 저력을 보여주며 줄다리기 우승 ❷미얀마의 흥겨운 전통 공연
❸남녀 혼성 400m 계주 힘찬 바통터치 ❹명랑운동회 공굴리기~









백중물품 후원에 감사합니다!

용인 용화사와 대구 성화사에서 백중물품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물품들은 필요한 이주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❶여는 마당의 다문화꿈터 장구춤 ❷명랑운동회 풍선안고 달리기 ❸가족화합 한마당의 김천스타일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4회 알콩달콩 다문화가족 한마음 운동회 개최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진오스님)와 다문화가족 남편 자조 모임 "다행복회"에서는 지난 9월 9일, 9시에서 16시까지 조마 장암교 잔디공원에서 다문화가족의 화합증진 및 다문화 존중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4회 알콩달콩 다문화가족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른 새벽부터 비가 내렸지만 다문화가족의 열정이 식을 줄 몰랐다. 이번 행사는 김천 관내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가족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지는 큰잔치가 되었다. 알콩달콩 한마음 운동회는 한궁게임, OX퀴즈게임, 열림의 시간, 명랑운동회, 점심공양, 가족화합 한마당으로 펼쳐졌으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열림의 시간에서는 식전공연으로 필리핀 자조 모임 필리핀 전통춤, 무지개모두가족봉사단의 우크렐레 연주와 합창, 다문화꿈터 장구춤 및 인사말, 환영사,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운동회 행운권추첨을 통해 대상을 받은 노은찬티(캄보디아)는 "비가 와서 올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아이들과 함께 왔는데 친구들과 얘기도 나누고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에어컨도 받아 매우 기뻐요."라고 말했다.

센터장인 진오스님은 "김천시에서 다문화가족 체육대회를 위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었고 이에 예전과 달리 무대도 설치되었고 푸짐한 먹거리도 제공되었다. 이번 운동회가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였다.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439-8280

행·사·알·림

■ 불교계 이주민 정책 토론회 "한국사회의 이주현상과 불교적 해법"
일시_ 10월12(금) 13:30~17:00 **장소_**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 시민문화관(5층)
주최_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 능인선원장배 전국 네팔인 축구대회2012
일시_ 9월29일(토) 오전8시 **장소_** 동두천 소요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주최_ 한국YBA동두천이주민센터 (02)6414-1034

■ 캄보디아 프쭘번 행사
일시_ 10월7일(일) **장소_** 구미마하이주민센터 잔디마당
주최_ 구미 마하이주민센터 (054)458-0755

■ 2012 여주 다문화축제
일시_ 10월14일(일) **장소_** 여주 중앙로
주최_ 여주이주민지원센터 (031)886-1911

■ 2012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체험
일시_ 10월14일(일) **장소_** 경주 신라문화원, 영천 만불사일대
주최_ 대구보현의집 (053)471-6640

■ 2012 외국인근로자문화축제
일시_ 10월13일(토) **장소_** 금오산대주차장
문의_ 구미꿈을이루는사람들 (054)458-0755